

尹 “안철수 인수위원장·권영세 부위원장·원희룡 기획위원장”

“安, 국정 운영 가치와 철학 공유...적임자라 판단”

인수위, 7개 분과·1개 위원회·2개 특위로 구성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부위원장에 권영세 의원을 임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부위원장에 권 의원과 함께 하마평에 올랐던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인수위 내 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

그는 “안 대표는 저와 국정 운영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선거 이후에도 제가 요청해서 먼저 자리를 가진 바 있다”며 “안 대표도 인수위원회를 이끌 의지가 있고 저 역시도 책임자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풍부한 의정 경험과 경륜으로 지난 선거과정에서 유능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윤 당선인은

평가했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과 정부 인수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어 원 기획위원장과 관련 “원 전 지사는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으로서 공약 전반을 기획했다. 기획위원회는 제가 국민께 선거과정에서 드린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를 새 정부의 정책 과제에 효과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해 (임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 잘하는 정부, 능력 있는 정부로 국민을 주인으로 제대로 모시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를 7개 분과와 1개의 위원회, 2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수위원회는 ‘인수위원장’

‘부위원장’ ‘기획위원장’ 그리고 7개 분과와 1개 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했다”고 했다.

7개 분과는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부·사법·행정, 경제1, 경제2,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분과”로 구성되며 1개 위원회는 “국민통합위원회”가 만들어졌다. 2개의 특위는 “코로나비상대응 특위, 지역균형발전 특위” 등이다.

윤 당선인은 “국민통합위원회는 유능하고 능력있는 국정운영으로 지역과 계층, 세대를 아우르는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비상대응특위는 “영세업자·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과 방역, 의료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수위원장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직함으로써 보다 책임감있게 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특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관계 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지역공약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새 정부의

국정 과제에 반영하고, 국민이 어디에 살든 기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했다. 김재환기자

尹 당선인측 “北, 완전한 비핵화 대화에 나서주기 바란다” 표명

尹, 12일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 브리핑 받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13일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파기할 움직임과 관련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표명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민회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ICBM 발사 움직임이나 (금강산 관광지구내) 우리 시설 철거, 모라토리엄 반복 움직임 관련해서 특별한 입장을 현재로서는 밝힐 수 없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12일 윤 당선인에게 외교·안보 관련 사안을 브리핑 한 것과 관련해 “비공개사항”이라며 “후보 시절에 적극적으로 늘 상황이 터지면 말씀드렸던 입장을 당선인 때까지 유지하는 것은 저희가 절제하고 배려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현재 전제드릴 입장은 없고 다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희망한다”고 다시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는 11일 북한이 지난 2월 27일과 3월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한미의 정밀 분석결과 개발중인 신형 ICBM체계와 관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2018년 폭파된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강도 중 일부를 복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한다.

한편 금강산 내 한국 시설을 철거하는 움직임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이슬기자

이재명, 사법리스크 해소까지 잠행할 듯...6월 지선 역할론도

이재명계 침묵에도 외곽부터 이재명 역할론 분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역할론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패배 하루 만에 분출되고 있다. 당내의 이같은 요구에도 이 고문은 대장동 특혜 의혹 등 사법리스크가 해소되기 전까지 잠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상임고문 측근그룹은 이 상임고문의 역할론에 공개적인 언급을 꺼리고 있지만 주변 그룹과 당 외곽에서는 이 상임고문이 당대표 또는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거나 오는 6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역대 민주당 대선 후보 중 가장 많은 표(1614만7738표)를 얻는 등 거센 정권심판론에도 이 상임고문이 ‘짚잘싸(짚지만 잘 싸웠다)’는 논리가 근거다. 정치교체 등이 상임고문의 제를 이어가야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논리도 엮여 있다.

친문 그룹인 이광재 의원은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 상임고문 지선 역할론에 대해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고 본다. 국민적 기대가 있는 것이고 아직 나이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고 여지를 줬다.

이 상임고문 대선 홍보를 측면 지원했던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은 같은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 채널서 민주당이 이 상임고문을 전 당대회 없이 당 대표로 추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상임고문 공약을 이어가야 민주당이 살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손 전 의원은 이 상임고문에게 당대표가 아니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만 59세로 역대 대통령과 비교할 때 젊은 층에 드는 만큼 서울시장을 하면서 21대 대선을 준비하라는 충고다.

김두관 의원은 11일 이 상임고문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공개 요구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재건과 지선 승리가 어렵다는 이유다. 다만 김 의원 등의 주장은 이 상임고문과 조율된 발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상임고문 측근 그룹은 이 후보가 당분간 낙선 사례를 하며 대선 과정을 복기하는 기간을 보낼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상임고문은 자신의 대장동 특혜 의혹과 배우자 김해경씨의 불법 의견 논란으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윤신의 폭이 크지 않다.

이 상임고문의 조기 복귀 시도는 친문의 견제는 물론 외부의 비판도 야기할 수 있다. 윤 비대위원장 인선을 두고도 민주당의 반성과 개혁 의지에 의문을 제기된 바 있다. 그는 친노 좌장이자 이 상임고문의 정치적 후원자인 이 해찬 전 대표의 측근이다.

‘우군’ 새로운물결은 10일 윤 비대위원장에 대해 “2018년 총선에서 위성정당 사태를 주도했다. 정치개혁 의지에 맞지 않는 인물”이라며 “민주당이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정치교체와 개혁에 대한 생각이 변함없는 지 의심스럽다”고 공개 비판했다.

다만 ‘저는 정치를 끝내기에는 너무 젊다’고 언급한 이 상임고문의 정치적 재기 시도는 상수로 보인다. 당권 장악 후 대권 잡기에도 성공한 문재인 대통령의 전례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이 상임고문은 낙선 이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대와 결속을 주문하는 메시지를 연일 내놓으며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형성된 친(親)이재명계도 이 후보의 분전에 일단 결속을 유지하는 모양새다.

서선욱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